

1. 자주적인 생활 습관 지도

부모님의 사랑과 어리광 속에서 자란 어린이들은 대부분 자주적인 생활 태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갑자기 여러 가지 습관을 바로 잡는 것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칭찬과 함께 교정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 일찍 일어나기
- 혼자 옷 입기
- 이 닦고 혼자 세수하기
- 벗은 옷 스스로 정리하기
- 자기 물건 챙기기
- 자기 물건에 이름 쓰기

2. 길 안내

입학 전 어린이들은 부모님 곁을 떠나 혼자서 다니는 일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길을 몰라 헤매거나 탄 곳으로 가는 일은 입학 후 가끔 있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횡단보도로 건너기, 신호등 색깔에 따라 건너기, 초록 불이 켜져도 하나, 둘, 셋 정도 세어서 어른들과 함께 건너는 연습을 입학 전에 습관화가 되도록 익혀두어야 하겠습니다. 또, 길을 잃었을 때는 어머니께 전화를 건다거나 집 주소 또는 집주위의 큰 건물 정도는 쉽게 말할 수 있도록 부모님의 지도가 꼭 필요합니다.

3. 예방접종 및 건강 진단

① 취학 전 예방접종(만 4-6세 추가 예방접종 4종) 완료여부를 확인해주세요.

② 봄이 되면 전염병이 많이 번집니다.

특히 4,5월에 홍역을 중심으로 수두, 볼거리 등이 번져 열이 나고 결석을 하는 일이 생깁니다. 예방접종을 놓친 어린이는 입학 전에 미리 예방 주사를 맞아 두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아울러 과거 앓았던 병의 재발은 없는지 건강 진단을 받아 보는 것도 우리 귀여운 자녀를 위하는 길입니다.

③ 미리 시력 검사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는 시력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못 느끼고 지나갔는데 학교 입학 후 칠판 글씨가 잘 안보여서 당황하는 일이 생깁니다. 기회가 있으면 한 번 쯤 시력 검사를 받아 보는 것도 좋습니다.

4. 기타

- ① 화장실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부모님의 손을 잡아야만 용변을 보는 어린이가 생깁니다.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마치고 나오는 버릇도 길러 주어야 하겠습니다.
- ② 입학 전에 지나치게 문자 해독을 시킨다거나 교과서를 가르칠 필요는 없습니다. 잘못된 필순 지도나 연필 잡는 자세는 바로 잡기가 힘이 듭니다. 단, 크레파스나 색연필 정도로 신문지나 큰 종이에 자기 마음껏 그려보고 손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 주는 것은 필요하며 필순에 맞게 이름을 쓰는 정도의 지도는 필요하겠습니다.
- ③ 끝까지 하지 않는 말이나 어리광이 섞인 말은 교정해 주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보통 사용하는 말 중에는 끝말이 생략되고 “어머니 밥” 정도의 말로도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요구대로 해 주십니다. 말을 끝까지 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어리광이 섞인 말은 교정되어야 하겠습니다.
- ④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유치원과는 다르게 중간 간식이 없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저녁 식사 시간까지 간격이 길어져서 점심 식사를 충분히 양껏 해야 합니다.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을 수 있게 지도해 주시고 갈치, 삼치, 고등어, 조기 등 생선가시를 스스로 골라 먹을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가정과 학교의 같은 점 및 다른 점을 지도해 주시고, 선생님도 아버지, 어머니처럼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학교나 선생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지도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귀 자녀들의 소질과 재능을 보다 관심 있게 살피시고 개성에 따라 좋은 지도가 있으시길 바라며 모든 일에 자신을 갖고 밝은 표정으로 입학에 맞이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학식 안내 : 2025년 3월 4일(화) 10시 동감실(본관 1층)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 3월 입학식 준비물

- ★ 하얀실내화
- ★ 신발주머니
- ★ 가방

◎ 1학년 하교 시간과 자세한 내용은 3월 4일에 안내됩니다.